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가)**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박목월, ｢경사｣-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이수익, ｢달빛 체질｣-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앙(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띠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 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앙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앙이 언젠가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 라네.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 (邵子)는 ‘베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흉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채제공, ｢용연사기｣- | |